

시사원정대 2021-8 월호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 주 수업 계획표

1 주 수업 내용

2 주 수업 계획표

2 주 수업 내용

3 주 수업 계획표

3 주 수업 내용

4 주 수업 계획표

4 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교재 들여다보기

1) 커버스토리

최신 시사뉴스에 대한 깊이 있는 배경설명과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해설기사.

매달 하나의 시사주제를 골라 쉽고 자세하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연관된 배경지식을 알려줍니다. 시사주제를 탐험하고 난 뒤에는 재미가 팡팡 터지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를 전개합니다.

2) 시사뉴스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3) 창의융합탐험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다룹니다. 과학, 한국사, 경제, 시사이슈, 국제까지 다채로운 주제를 다룹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습니다.

4) 문화예술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기 위한 코너.

문화예술탐험에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까지 폭 넓은 문화, 예술 주제의 기사가 실립니다. 매달 추천도서가 제시되어 함께 책을 읽은 뒤 토론해볼 수 있습니다.

5) 리딩북

신문의 사실·칼럼을 10대 눈높이에 맞춰 정리합니다.

2 개의 사실·칼럼을 쉽게 이해하며 읽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영어로 작성된 기사와 그 해석도 담겨 있습니다. 생생한 사진과 함께 국제 뉴스를 읽다 보면 상식을 키우는 것은 물론, 어휘·발음·독해·문법 능력도 향상됩니다.

6) 체험학습 비밀미션

체험학습 주제 고르기부터 장소 찾기, 체험 보고서 쓰기까지 한 번에 똑딱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3주 수업 계획표

단원	시사원정대 8월호 3주 (90분)		
학습 목표	김대건 신부의 업적에 대해 배운다.		
활동 초점	- 김대건 신부와 천주교 박해에 대해 공부한다. - '정년연장'과 '고용연장'의 의미를 알고 현 시점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 생각해본다.		
구분	2주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정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5
펼치기	- 70~73 한국사 퀘스트 -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 신부, 김대건	- 천주교 박해 - 순교	20
	- 74~77 과학지식배틀 - UFO와 외계인, 너의 정체가 궁금해!	- 미확인 항공 현상(UAP) - 비소	20
	- 8~13 맞춤칼럼 - 정년연장 vs 고용연장	- 고용연장 - 국민연금	40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달 수업 예고	- 천주교와 김대건 신부의 역사를 안다.	5

[20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시사원정대 8월호 3주		
학습 목표	김대건 신부의 업적에 대해 배운다.		
활동 초점	- 김대건 신부와 천주교 박해에 대해 공부한다. - '정년연장'과 '고용연장'의 의미를 알고 현 시점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 생각해본다.		
구분	2주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정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3
펼치기	- 70~73 한국사 퀘스트 -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 신부, 김대건	- 천주교 박해 - 순교	15
	- 8~13 맞춤칼럼 - 정년연장 vs 고용연장	- 고용연장 - 국민연금	15
마무리	다음 달 수업 예고, 신문 스크랩하기(스케치북 활용) - 활동 안내	- 천주교와 김대건 신부의 역사를 안다.	2

한국사퀴스트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 신부, 김대건

<어휘 Up>

천주교: 가톨릭교를 그리스 정교회와 구별하여 이르는 말.

박해: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함.

탄압: 권력이나 무력 따위로 억지로 눌러 꼼짝 못 하게 함.

선교: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펴.

서품식: 신품 성사에 올리는 예식.

항로: 선박이 지나다니는 해로.

<퀴즈>

1. 김대건 신부는 계속되는 천주교 박해로 인해 끝내 믿음을 저버렸다. (O/X)
2. 김대건의 생가는 2021년 현재 '당진 솔피마을 김대건 신부 유적'이란 이름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이다. (O/X)

정답: 1. X 2. O

<교사 참고자료>

[신문과 놀자!/피플 in 뉴스]교황청 고위직 오른 유흥식 대주교

유교를 국교로 하던 조선에 천주교가 발을 붙이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위정척사(衛正斥邪) 분위기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지요. 그런 가운데 마카오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김대건(1821~1846)이 1845년 6월 교황청으로부터 사제품을 받습니다. 한국인 첫 신부가 탄생한 것이었지요. 구한말 서양 근대 문물과 사상이 천주교를 통해 전파된 것은 단순한 종교 문제를 넘어 엄청난 문화 접변의 계기였습니다.

올해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네스코는 김대건 신부를 '올해의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했고 로마 교황청은 8월 기념행사에 총리급 특사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김대건 신부는 천주교 박해가 심했던 1821년 충남 당진 솔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24세에 신부가 된 뒤 사제 생활 1년 만인 이듬해 25세의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가톨릭 교계는 그가 순교한 지 100년이 되던 1946년 솔피마을에 성지(聖地)를 조성했고, 교황청은 그의 평등사상과 인류애를 받들

어 1984년 성인(聖人)으로 추대했습니다.

당진시는 그의 생애를 기려 올해를 '김대건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캐릭터와 기념 메달을 출시한 데 이어 13km 길이의 버그내 순례길도 정비했습니다. 당진시는 솔피성지를 스페인의 산티아고처럼 세계적인 순례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장인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70·사진)가 로마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된 겁니다. 한국인 신부가 교황청 고위직에 임명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1일 장관에 유 주교를 임명하고 그에게 대주교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성직자성은 전 세계 사제들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그들의 활동을 감독·심의하는 것은 물론 신학교 관할권도 갖고 있습니다. 임기는 통상 5년입니다. 유 대주교는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며 받아들일 줄 알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나설 줄도 알고, 민족·종교 구분 없이 사람을 대하는 형제애를 가진 사제를 양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임명을 두고 교계 안팎에서는 한국 천주교회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유 대주교에게 부여될 또 다른 역할을 주목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유 대주교가 교황청과 북한, 그리고 중국 등 아시아 지역과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황의 북한 방문에 유 대주교가 가교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레푸블리카는 '바티칸에 입성하는 한국 성직자, 북한 방문을 꿈꾸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유 대주교는 12일 "교황님의 방북을 주선하는 역할이 맡겨진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명이 한반도의 봄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동아일보 2021-06-16]

과학지식배틀

UFO와 외계인, 너의 정체가 궁금해!

<어휘 Up>

추진력: 물체를 밀어 앞으로 내보내는 힘.

물리학: 물질의 물리적 성질과 그것이 나타내는 모든 현상,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나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

비소: 금속광택이 나는 결정성의 비금속 원소. 자연적으로는 황이나 금속과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며, 그 화합물을 독성이 있다.

박테리아: 생물체 가운데 가장 미세하고 가장 하등에 속하는 단세포 생활체. 다른 생물체에 기생하여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발표나 부패 작용을 하기도 하여 생태계의 물질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문>

1. 지난 6월 미국 정부는 UFO의 존재를 인정했다. UFO는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그 근거를 적어보자.
2. 내가 생각하는 UFO나 외계인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려보자.

<교사 참고자료>

[정미경 기자의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美정부 'UFO보고서' 이달 첫 공개... 외계인 신비 풀릴까

최근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폭스뉴스의 피터 두시 백악관 담당 기자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괴롭히는 질문을 잘 던지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가 양국 정상 기자회견 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두시 기자: "미스터 프레지던트, 마지막 질문을 해도 될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 "음, 평소처럼 못된 질문 하면 안 받아주겠어."

두시 기자: "아닙니다. 매우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최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하늘을 떠다니는 UFO(미확인비행물체)에 대한 동영상과 자료들을 정부 당국이 수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물체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 "(웃으며) 오바마한테 다시 물어볼게."

기자의 황당 질문과 이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대통령의 재치에 회견장에는 폭소가 터

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바빠 퇴장 준비를 합니다. 한국 대통령을 나 홀로 단상에 세워놓으면 안 되니까 "빨리 갑시다. 대장(Come on, boss. Let's go)"이라는 말과 함께 '어서 여기를 떠나자'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보스"라고 부른 것이 미국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격식을 차리지 않는 친한 사이의 호칭이죠. 양국 대통령은 정말 사이가 좋은 듯 보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화제가 된 것은 심각한 대통령 기자회견장에서 UFO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UFO에 대한 미국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그동안 UFO 하면 연상돼온 '사이비'스럽고 황당무계한 이미지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질문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지만, UFO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죠.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 설명을 하자면 기자회견이 있기 나흘 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심야 토크쇼에 출연해 UFO를 화제에 올렸습니다. 그는 "심각하게 하는 말이다. 정부는 미확인물체에 대한 동영상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이 뭔지 정확하게 모른다. 그 물체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비행 궤도를 설명하기 힘들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현상을 진지하게 조사해서 밝혀내려는 (정부)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UFO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낙인찍힌 주제였습니다. '유에프올로지스트(Ufologist)'라고 불리는 UFO 연구자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일반 사람들의 대화에서 지나치게 UFO에 관심을 보이면 "제 정신이 아닌 사람" 취급을 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공정과 신뢰를 중시하는 주류 언론이 UFO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CBS 유명 시사프로그램 '60분'은 "자주 출몰하는 UFO"라는 제목으로 학자, 정부 당국자, UFO를 직접 목격한 군 조종사들의 인터뷰를 엮어 내보냈습니다. 지식인들이 많이 읽는 잡지 '뉴욕커'는 "펜타곤(국방부)은 언제부터 UFO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긴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우리가 UFO에 대해 믿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미 정계의 'UFO 전도사'격인 해리 리드 전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이렇게 언론이 일제히 주목한다는 것은 조만간 UFO 관련 대형 '이벤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정보국(DNI)과 국방부가 공동 작성해 이달 중 의회에 제출 예정인 UFO 보고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UFO 관련 첫 정부 보고서입니다. 정치인들끼리 돌려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에게도 공개되는 보고서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한 공개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데이비드 노퀴스트 당시 국방 부장관은 “펜타곤 내에 UFO 현상을 연구하는 극비 태스크포스가 있다”는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펜타곤은 의회를 상대로 태스크포스의 연구 결과를 모은 비공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당시 마르코 루비오 상원 정보위원장은 “브리핑 내용이 부족하다”며 추가 정보를 수집해 종합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에 나올 보고서가 바로 그 보고서입니다..

오랫동안 UFO 존재를 부인해온 정부가 갑자기 브리핑을 열고, 보고서도 내기로 한 데는 2017년 말 NYT 보도가 계기가 됐습니다. UFO 학계에서는 2017년 12월 16일이 역사적인 날입니다. NYT가 1면에 대문짝만하게 “반짝이는 아우라와 ‘검은 돈’: 펜타곤의 비밀스러운 UFO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날입니다.

NYT는 이 기사에서 ‘외계인의 지구인 납치’ 같은 허황된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내의 UFO 극비 부서 운영과 자금 조달에 초점을 맞춘 ‘소박한’ 기사였습니다. 그래도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UFO를 열성 팬덤의 영역에서 일반인의 대화 주제로 끌어낸 것이죠.

NYT는 이 기사와 함께 UFO 동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04년 USS 니미츠 항공모함 전투기 조종사들이 샌디에이고 상공에서 촬영한 미확인물체 동영상입니다. UFO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것입니다. 지난달 방송된 ‘60분’ 프로그램에는 당시 UFO를 동시에 목격했던 4명의 조종사 중 2명이 출연해 UFO의 형태와 비행 속도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NYT 보도 후 미 정부 방침은 크게 바뀝니다. 더 이상 감춰봤자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2018년 8월 통과된 2019년도 국방수권법은 국방부가 UFO 부서를 계속 유지하고 연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국방수권법에 UFO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은 처음입니다. 2019년 국방부는 군 조종사들에게 UFO 관련 첫 가이드라인을 배포합니다. “미확인물체를 발견할 경우 검열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주고 상부에 적극 보고토록 한 것입니다.

이달 중 모습을 드러낼 정부 보고서에 대해 기대가 큰 만큼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UFO에 대해 많은 정보를 축적한 정부가 단번에 보따리를 크게 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UFO가 공론의 영역으로 나와 무엇이 진실인지 토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UFO 연구에서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즘 미국은 “UFO”라고 하지 않고 “UAP”라고 부릅니다. ‘미확인비행물체(Unidentified Flying Object)’라는 단어가 주는 비과학적 이미지 때문에 미 정부와 언론 등은 ‘미확인 대기현상(Unidentified Aerial Phenomena)’이라고 부르는 추세입니다. 우선 “UAP”라는 단어에 익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2021-06-01]

맞춤칼럼

정년연장 vs 고용연장

<어휘 Up>

종사: 어떤 일을 일삼아서 함.

노사: 노동자와 사용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민정: 민간인과 정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

가중: 부담이나 고통 따위를 더 크게 하거나 어려운 상태를 심해지게 함.

베이비붐 세대: 전쟁 후 베이비 붐의 사회적 경향에서 태어난 세대. 우리나라에서는 전후 세대, 특히 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를 이른다.

알선: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

연공서열: 근속 연수나 나이가 늘어 감에 따라 지위가 올라가는 일 또는 그런 체계.

호봉제: 직계나 연공 따위를 기초로 정해지는 급여 체계를 이르는 말.

직무성과급제: 개인이나 집단이 이루어 낸 근로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는 임금, 또는 그러한 임금 지급 방식.

법제화: 법률로 정하여 놓음.

반대급부: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발문>

1. 정년연장과 고용연장 중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일까? 둘 중 하나를 택하여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완점도 함께 제시해보자.
2. 내가 만약 한 기업의 대표라면? 고용연장을 위한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의 고용 방식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이유와 함께 글로 적어보자.

<교사 참고자료>

현대차 노사, 정년연장 대신 MZ세대 복지강화 잠정 합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3년 연속 무분규 합의 가능성을 높였다.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선 논란이 됐던 정년 연장이 빠지는 대신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복지제도가 새로 반영됐다. 최근 중장년 위주 기술직(공장 생산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받는다면 별도 노조까지 출범시키는 등 갈등을 빚은 연구 사무직 위주 MZ세대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MZ세대 직원들 사이에선 여전히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갈등을 봉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21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200%+350만 원 △품질 향상 및 재해 예방 격려금 230만 원 △주식 5주 등이 들어갔다.

논란을 부른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는 합의안에서 빠졌다. 노조는 국민연금을 받기 전인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무리한 요구라며 거절했다. 다만, 사측은 대안으로 숙련된 근로자 중 희망자에 한해 직군별로 재고용을 하는 '숙련 노동자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 실업에 따른 논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회사 내에서 MZ세대들이 정년 연장에 거부감을 보여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힘들었다.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복지는 강화됐다. 결혼·재혼·출산 축하금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올렸다. 입사 1년 후부터 누구나 차량 구매 시 20% 할인을 해주기로 했다. 기숙사 거주 기간 5년 이상 연장, 1인 1실 운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도 포함됐다. 연구·일반직이 시간외수당 및 초과연장 근로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조는 이번 합의안에 따른 성과급 총액이 1인 평균 1806만 원 수준으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나 MZ세대는 근속 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아 기본급여 자체가 낮기 때문에 성과급 총액을 계산해 봐도 1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대차의 한 MZ세대 직원은 "기본급이 210만 원 수준이면 성과급은 1000만 원 수준이다. 노조가 밝힌 평균 1800만 원 성과급 총액은 연차가 높은 생산직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기본급, 성과급을 많이 받아온 생산직 위주의 기존 근로자들에 비하면 MZ세대를 위해 마련했다는 복지는 여전히 만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현대차 노조는 27일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 투표를 진행한다. 찬성이 50%가 넘으면 합의안이 최종 타결된다. 현대차의 다른 30대 직원은 "27일은 코로나19 백신 단체접종을 하는 날이다. 백신 휴가 사용 직원, 기존 재택근무자 등이 많은데도 찬반 투표는 당일 오전에 반드시 투표소에 나와서 해야 한다. 의견 수렴 절차부터 MZ세대 배려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